

‘발암물질 사태’ 기업·정부·지자체 합작품

‘세방산업 1급 발암물질 다량 배출 사태’는 비윤리적 기업과 무책임한 지자체, 방관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환경부의 합작품이라는 지적이다.

세방산업은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을 대체할 수 있는 원료가 있음에도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는 세방산업이 홍보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절차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발암물질 대체 원료 있지만 사용 안 한 세방산업=14일 세방산업과 A기업에 따르면 세방산업은 지난해 11월 A기업으로부터 배터리 격리막 세척에 사용되는 TCE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세정제 BCS 샘플을 받아 안전성 테스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BCS 공급가격 차이를 놓고 이견을 보여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다. 세방산업은 BCS가 TCE에 비해 비싸고 일부 작업환경을 바꿔야 하는 부분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200ℓ 기준으로 TCE는 약 35만원, BCS는 80만원으로 2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게 BCS 공급업체의 설명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공정에 TCE가 사용된 제품은 수입까지 거부하고

세방산업 TCE 대체물질 비용 이유 도입 안해 작년 국감 지적 불구 광주시·환경부 수수방관 발암물질 공장 ISO환경시스템 인증도 의문

작년 공장 이전 추진...“발암물질 배출기업 안데” 담양군은 거절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TCE의 안전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이 BCS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BCS 공급 업체는 “공정 과정을 보완하면 BCS도 배터리 격리막 세척 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세방산업 김동호 구매팀장은 “사용을 검토한 적은 있지만(BCS 안전성 테스트) 관련 자료는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세방산업이 지난 2011년 국내 한 업체로부터 받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ISO 14001 인증은 환경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고 지속적 환경성과를 개선하는 노력이 있을 경우 받을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ISO 14001 인증은 환경을 위해 유해물질을

저감하는 연구나 시설에 투자할 때 받는 것”이라며 “수년 동안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새로 설비를 갖추는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관리소홀, 환경부는 방관=세방산업을 광주로 유치한 뒤 발암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관리하지 않은 광주시와 수년간 1급 발암물질 배출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환경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세방산업은 지난 2001년 광주공장을 증설하고, 지난 2004년 안양의 본사를 하남산단 광주공장으로 이전했다. 광주시는 세방산업이 수년 동안 유독물질인 TCE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양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입장이다. 기업을 유치하고도 감시나 규제 등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광주시가 환경부의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정보시스템’만 확인했어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었다는 게 환경단체의 얘기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도 유해 대기 측정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오염우려 지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관리업무가 2013년 지자체로 이양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세방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도 5개월 가까이 광주시 관련 내용을 통보조차 하지 않다가 지난 3월에야 세방산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요청했다. 당시 조사에서 세방산업은 TCE 저장시설의 출입문과 증류기의 탱크 뚜껑을 개방한 채 작업하는 문제 등이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대책 마련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광주시의 협조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세방산업은 지난해 하반기 현재 하남산단 내 공장을 담양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담양군은 발암물질 배출업을 입주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화단을 축축하게 광주 낮 최고기온이 32도를 기록한 14일 광주 북구청 녹지과 직원이 중흥동 광주역앞 화단에 물을 뿌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세방산업에 대시민 사과 요구

배출시설 개선때까지 무기한 조업중단도

광주시가 1급 발암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해온 세방산업에 대시민 사과를 요구했다. 또 공해배출시설 개선 시까지 조업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14일 “세방산업 TCE 대책 준비위원회”를 열고 준비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대시민 사과와 함께 개선 시까지 조업중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세방산업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

해 환경관련 기관·단체, 교수, 광산구 등 관계자 14명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세방산업 대표에게 발암물질 배출에 대한 대시민 사과와 공해배출시설 개선 시까지 조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실태 파악을 할 수 있는 검증위원회 및 소송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서 환자 뇌진탕 사고 가족들 “관리 부실” 주장

60대 환자가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다가 넘어져 뇌진탕 등으로 수술을 받았다. 환자 가족들은 병원 관리 부실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A씨에 따르면 광주시 서구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아버지(61)가 지난 10일 병원 화장실에서 휠체어를 탄 채 넘어져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A씨의 아버지는 지난 11일 대학병원에서 뇌진탕으로 수술을 받고 지난 12일에서야 의식을 회복했다.

A씨는 “병원 측은 아버지가 혼자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졌다고 하지만 당뇨와 합병증 등으로 거동조차 힘든 아버지가 어떻게 혼자서 화장실을 갔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내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아버지가 사고난 당일에는 CCTV가 고장나 확인할 수 없다’고 변명을 한다”며 “10일 사고가 있었는데 11일에서야 아버지를 대학병원으로 옮긴 병원 측의 늦은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구정 관계자는 “병원에서는 3차례 전화를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새벽에 전화가 와서 어머니가 2차례 받지 못하다가 1시간 이후 연결이 됐는데, 그 시간 동안 병원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중복분양 사기 은닉재산 30억 광주지검, 법원에 동결 요청

광주 최대 오피스텔 중복분양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시행사 대표의 은닉재산 30억 원의 동결을 찾아내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피해자가 수백명에 이르는 데다 경제범죄의 특성상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둔 조치다.

광주지검은 오피스텔을 중복 분양한 박모(57) 대표이사의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추징 재산은 박씨가 소유한 오피스텔 분양권 63개, 토지 5필지, 아파트 1채, 은행계좌 9개, 자동차 1대 등 30억 원 상당이다. 이는 피해 금액의 10% 가량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립학교 교사채용 사기 혐의 검찰, 광주시의원 압수수색

검찰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 사기 혐의로 입건된 광주시의원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1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광주시의회 A의원의 자택과 관련 회사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한 서류 등을 분석 중이다. A 의원은 지난 3월 광주경찰에 의해 사립학교 교사 채용과 광주 남구청 의뢰기 납품 및 공사 수수 대가로 업무 분담금 63개, 토지 5필지, 아파트 1채, 은행계좌 9개, 자동차 1대 등 30억 원 상당이다. 이는 피해 금액의 10% 가량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항소 깜빡했다...여수시의원 의원직 상실 내년 4월 보궐선거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수시의회 노순기(59·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 기간에 항소하지 않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14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노 의원이 지난달 2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 의원은 항소 기간인 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인 지난달 29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30일 자로 형이 확정됐다. 노 의원은 “일반범의 경우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노 의원은 의회에 법원의 형 확정 통보가 되면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형 확정일 다음날인 이달 1일 치러진 여수시의회 상임위원장 선거도 무효가 됐다. 노 의원은 상임위원장 선거에 기획행정위원장 후보로 나서서 26표 가운데 17표를 얻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노 의원은 “변호사가 항소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노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여수시 대교·국·월호동 선거구의 보궐선거가 내년 4월 12일 치러질 예정이다. 노 의원은 2011년 3월에 여수시수산인 협회 부회장을 맡아 여수시수산인회관 건축 계획을 추진하면서 2억원 상당의 공사비 2억6000만원으로 부풀려 신청해 그 중 자부담금 6000만원을 협회에서 부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편취한 혐의(사기)로 당시 회장인 신모(79)씨와 함께 기소돼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여수=김정희기자 chkim@kwangju.co.kr

아침 숙취 운전 불시 단속했더니...광주 22건 무더기 적발



○...전날 술을 마시고 달걀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숙취 운전자들이 경찰의 불시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 ○...1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출근길 음주단속에서 면허정지 17건, 면허취소 5건 등 22건이 단속됐다

는 것. ○...경찰은 “지난 1일 28건을 적발했는데도 여전히 운전자들이 숙취운전의 위험성을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경찰청 차원에서 단속 기준을 현행 0.05% (혈중알코올농도)에서 0.03%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일반 부동산 매매, 임대
경,공매 NPL 컨설팅

20년경력 조역사 010-6211-4585

경매 추천물건

- ★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11,546㎡ 건물 5,733㎡
감정가 48억8천6백 ▶최저가 21억9천(45%)
- ★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나이트뷰 10층중 10층 스키아리온지상가 83㎡
감정가 8억7천7백 ▶최저가 8억7천7백
- ★ 광주 광산구 산정동 광주여대 인근 운천학원부지 토지 6,655㎡
건물 443㎡ 감정가 27억6천1백 ▶최저가 27억6천1백
- ★ 광주 북구 용봉동 전대후문 인근 영화관 1층 684㎡ 상가
감정가 35억5천5백 ▶최저가 19억9천(56%) 식당, 대형편매장 적합
- ★ 광주 광산구 안창동 공장 대지 5,940㎡ 건물 5,872㎡
감정가 57억6천7백 ▶최저가 25억8천3백(45%) 기아차공장인근
- ★ 광주 동구 금남로5가 대로변 산업은행인근 3층상가 대지 566㎡
건물 827㎡ 광고효과최상 감정가 21억3천2백 ▶최저가 14억9천2백
- ★ 광주 북구 신안동 자동차거리 6층모델 토지 363㎡ 건물1,024㎡
감정가 9억9천3백 ▶최저가 5억5천6백(56%) 코너위치
- ★ 광주 북구 두암동 원룸건물 대지181㎡ 건물320㎡
감정가 2억6천5백 ▶최저가 1억8천5백 투자추천

투자 추천 물건

- ★ 광주 북구 유등동 대로변 6층상가 대지 525㎡ 은행, 사우나등
고수익유동인구많은 ▶매매 55억원
- ★ 광주 북구 유등무인텔 대지 1,010㎡ 건물 1,610㎡ 객실 20개
월 5천만원 수익위치좋은 ▶매매 20억원
- ★ 광주 수완동 경찰지구대 인근 아파트상권 4층상가 준주거지역
대지 475㎡ 월 8백만원 ▶매매가 17억
- ★ 광주 서구 풍암동 대형마트 대지 2,961㎡ 1층 마트, 2층 의원,
3층 학원 대형주차장 매매가 상당결정
- ★ 광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신축4층빌딩 대지 782㎡ 건물 1,829㎡
보증금 6억 월 2천3백 용 18억 ▶매매 48억
- ★ 주월동 EG드림아파트 인근 대지 661㎡ 현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 판매장 상가 건축적합 ▶매매 13억원
- ★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 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7천 월 3천2백만원 ▶매매 48억(요양병원허가취득)
- ★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역앞 대지480㎡ 업무지원 시설부지코너위치
건면70% 용적250% ▶급매가 4억4천(조정무)

수익형 추천

- ★ 전남 영암군 월출산 조망 5층 모델 대지 1,181㎡ 건물850㎡ 대로변
내외부개끗 매매 4억(용2억7천) 투자적합 장기투숙 다수 직영추천
- ★ 광주 첨단2지구 대지 258㎡ 건물380㎡ 코너위치 1층상가 다가구 5세대
인접 월 440만원 용 2억2천5백 ▶매매 9억3천
- ★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구펜션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수익성 미래 가치우수 매매가 상당후 결정
- ★ 제주도 서귀포 시장정마을펜션, 빌라 부지 적합 4,000㎡ 주택 28세대
가능수익형 28억선교환
- ★ 광주 동구 자산동 대지 298㎡ 건물 1,088㎡ 원룸 18개 투룸 6개
쓰리룸 6개 (용4억5천포함) 대로변버스 정류장앞 ▶매매 13억5천
- ★ 광주 소촌동 대형상가 대지 2,146㎡ 주차장빌딩 포함 대형마트,
사우나등 고수익상가 매매 상당결정
- ★ 목포시연산동 롯데슈퍼 인근대로변 버스 정류장 앞 대단위아파트
단지배후 신축 3층건물 대지 1,461㎡ 광고효과 최상 ▶매매 35억
- ★ 광주 남구 주월동 남구청 인근고수익 4층상가, 오피스텔 대지 366㎡
건물 947㎡ 지하, 1층 상가 사무실, 2~4층 오피스텔 ▶매매13억5천

상가, 주택, 토지, 임야 매매하실분 전속중개 접수 상담환영